

합천 화양동 윤씨가 世傳 <기수가>의 문화적 함의

정 무 룡*

차 례

- | | |
|------------------------|-----------------------|
| I. 머리말 | 3. 양반 편만의 배경 노정 |
| II. 본론 | 4. 협애한 언로에 기댄 언어능력 신장 |
| 1. 가사 표현영역의 확장과 변이형 생성 | III. 맺음말 |
| 2. 여권 의식의 성장과 반동 | |

I. 머리말

이 연구는 <기수가>의 문화적 의미를 탐색하는 데 목표를 둔다. 필자는 선행 논문¹⁾에서 합천 화양동 파평 윤씨 대언공파 문중에서 세전된 9편의 규방가사²⁾ 중 7편을 논쟁형 진술 양식으로 규정하여 논쟁의 과정,

*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줄고, 『합천 화양동 윤씨가 世傳 <기수가>의 논쟁 양상 연구』, 韓國詩歌學會, 『한국시가연구』 제21집(2006, 11), 285~324쪽.

2) 앞으로의 논의 전개 및 독자들의 읽기를 돕고자 작품들의 주요한 외적 정보를 수록된 순서에 따라 도표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주요 쟁점 그리고 주장의 변증 방식 및 그 기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규방가사를 화전가류, 계녀가류, 탄식가류로 분류해 온 학계의 통설을 넘어 논쟁가류란 새로운 한 갈래를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타진해 보았다. 선행 논문에서 분석한 텍스트의 진술 양식은 그 나름의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그 작업은 텍스트 자체의 이해와 평가의 편모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진술 내용에 대한 규명이 동반될 때 텍스트의 사적 위상이 온전하게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기수가>의 진술 내용에 대한 규명 작업을 수행해 보고자 한다.

<기수가>에 대한 논의는 자료가 공개된 이래 관심이 꾸준했지만³⁾ 대

화양동 파평 윤씨가 세전 규방가사 작품군 개요

원작품명	한자명	작가	작품길이	출처	비고
기수가<A>	淇水歌	출가부인 하당덕 소죽	148행	52장본	
답기수가	答淇水歌	들오신 부녀 소죽	103행	“	서홍김씨 작업
히도가<C>	諧嘲歌	출가부인 소죽	75행	“	하당덕추정-필자
위유가<D>	慰諭歌	출가부인소죽	43행	“	”
반기수가<E>	反淇水歌	들오신 부인 스촌댁이 불춤혀 지은 것이라	173행	“	
조소가<F>	自笑歌	스촌댁이 혼즈 안즈 지은 것이라	103행	“	
괴소가<G>	譏笑歌	출가부인 소죽	69행	“	
계승우귀여<H>	戒省于歸女		89행	“	<I>의 이본
경계소<I>	警戒辭	문중에서는 김손댁 작품으로 추정함	89행	12장본	
권호가<J>	勸孝歌	”	115행	“	

※ 알파벳은 이후 서술의 간편을 위해 필자가 임의로 부여했으며 3~6음절의 4음보를 행의 단위로 잡았다.

3) 황영심, 『<합천 화양동 파평윤씨가 규방가사>에 대하여』, 『국어과교육』 제10집(1990), 193~203쪽.

柳海春, 『19世紀 和答型 閨房歌詞의 創作過程과 그 意義』, 문학과 언어학회, 『문학과 언어』제21집(1999). 111~132쪽.

부분이 담론의 양식이나 구조, 나아가 문예 미학적 방면의 연구에 치중하였을 뿐, 작품들이 생산된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이 연구 또한 시험적이라 얻은 결과도 가설 수준에 그칠 우려가 없지 않다. 하지만 문제의식이 방불하거나 논의 방향만이라도 유사한 선행 연구가 희귀하다는 점에서⁴⁾ 이 논문이 <기수가>에 대한 연구를 한층 더 심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새로운 경험적 사실의 서사(real narrative)⁵⁾가 규방가사의 현저한 한 속성이며 특히 <A>~<G> 7편이 논쟁형 담론 양식이란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이들 작품에서 생생한 생활 국면들을 직접 대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기수가>는 현실의 기록화란 평가를 부여해도 과분하지는 않을 만큼 생활 국면들이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기수가>는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보유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수가>의 담론 내용의 분석과 해명이 서둘러야 할 과제로 인식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과제가 여실히 규명된다면 우리는 19세기 후반 향촌 사녀들의 문화적 지형도를 미완이나마 재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류혜춘, 「19세기 <기수가>에 나타난 담론의 양상과 그 기능」, 한민족어문학회, 『韓民族語文學』 제44집(2004, 6), 49~76쪽.

박진주, 「<기수가>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06, 8).

4) 구술문화가 일상적 금기 사항들을 파괴해 구성원들의 이해와 통합을 돕는다는 시각으로 박연호가 <기수가>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추구한 작업이 거의 유일하다 하겠다. 하지만 이것마저 본고와 논의 방향이 다르기에 이런 발언이 가능해진다. 박연호, 「<기수가> 담론의 사회·문화적 의미」, 『중원문화론총』(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05).

5) 이 용어의 특성, 유형, 실례 등에 대해서는 백순철,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려대 박사학위논문(00, 12), 88~94쪽 참조.

Ⅱ. 본론

1. 가사 표현 영역의 확장과 변이형 생성

<기수가>는 19세기 후반 규방가사의 창작과 향수에 관련된 정보와 정황을 사실적으로 제공한다는 면에서 시가사적 의의가 크다. 합천군 윤씨의 사례이므로 지역적, 문중적 한계가 염려스럽지만 기우로 돌려도 괜찮을 듯하다. 합천이 규방가사의 주요 3대 분포 지역중 하나인 성주권에 속하므로⁶⁾ 해당 장르의 당대 유행 현상에 기민하게 반응했거나 혹은 새로운 유행의 발원지로 인정할 수도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수가>가 전해주는 여러 사항들은 19세기 후반 규방가사의 실태를 탐구하는데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시가사를 서술하거나 살피는데도 매우 긴요할 것이다.

1930년대 <기수가>의 존재 양상도 당시 해당 갈래의 처지에 대해 유익한 소식을 전한다. 윤석민(尹錫政)이 52장본 말미에 부기한 발문⁷⁾은 당시에도 양반가 규수들이 출가할 적에는 친가에 수장했던 규방가사를 빼쳐가던 관습이 건재했음을 일러준다. 52장본의 생성은 전적으로 창원인 황유정에게 시집가는 손녀가 ‘조상수적’을 반복 읽겠다며 필사해 주기를 간청함에 연유했다. 당대에는 세전되던 규방가사를 남성이 관장, 향수했음을 일러준다. 여담이지만 황실이 시집으로 52장본을 지참해갔더라면 그 뒤가 어찌 되었을까 상상해 보는 일도 재미있다. 저것의 원본은 행방이 미궁이다. 무슨 연유했든 52장본이 윤씨 가문에 유전되었기에

6) 權寧徹, 『閨房歌詞研究』(二友出版社, 1980), 75~94쪽.

7) 계유(癸酉) 칠월 십구 일 시죽하여 이십이일 필서(畢書). 황실아 조상 수적(手迹) 두고 본다고 간청하기로 소일습아 시죽하였더니 맛춤 안달(眼疾)노 혼썩 눈을 감고 씨자하니 글시도 기괴할 뿐 팔순지연(八旬之年) 정신이 험난(眩亂)할 듯 그러나 너 필적이 호부간(好否間)의 네에게는 소등흥이 될 거시니 협등(篋中)의 정히 간슈하였다가 너 죽은 후의 너여 보면 네 마음 아니 새롭겠나 아모커나 정케나 하여나. 이하 원문의 띄어쓰기와 한자 병기는 필자에 의함.

오늘날 우리가 대면할 수 있다. 독자와 52장본 양쪽에 요행이라 할 일이다.

<A>의 작가 하당택⁸⁾은 52장본 규방가사 연작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앞의 <표1>이 말해주듯 화양동 윤씨가에 세전되던 9편의 규방가사 가운데 확인되는 작가는 모두 4명이다. 그들 중 하당택이 3편, 사촌택⁹⁾이 2편, 김산택¹⁰⁾이 2편, 서흥 김씨¹¹⁾가 1편을 각각 지었다. ~<G>가 하당택의 <A>를 계기로, 그리고 <H(I)>에도 그 파장이 미쳤음을 감안하면 그녀가 8편에 직간접으로 간여했다 하겠다. 이런 면으로라도 윤씨 문중에서 산출된 규방가사에 그녀가 차지하는 위상이 가늠된다.

그녀는 10여 년 만에 설을 맞아 귀녕했다. 역시 명절을 기해 근친 온 원근 자매들과 의논하여 종족의 정신적 지주인 영사재에서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 그 잔치 시종의 인상적인 장면들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그녀는 <A>를 지었다.¹²⁾ 훗날 추억할, 혹은 기억을 보강해 줄 방편으로 기능하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실기나 역사적 기록물의 수단으로 규방가사가 이용되었던 사실을 일러준다. 규방가사의 취급 영역 혹은 대상이 확장된 실정을 반영한다.

규방가사의 진술양식이 체험적 사실의 서술임을 확인시켜 주는 외에 또 논쟁의 도구로 전환되었다는 사실도 <기수가>를 통해 인지할 수 있다. 하당택이 문중 여성들의 하루 놀이를 기록화로 남기고자 <A>를 지

8) 尹炳九(1801~58)의 장녀로서 達城郡 河墾面 霞塘里 全義人 李正禧(全陽君 宗孫)에게 출가했다. 이신성, 앞 글, 222~223쪽.

9) 52장본 필사자 윤석민의 양모로 陝川郡 伽倻面 養村里에서 윤씨 문중으로 시집왔다. 이신성, 앞 글, 224~225쪽.

10) 善山 金氏로 화양동 尹炳九에게 시집왔다. 이신성, 앞 글, 222쪽.

11) 유해춘이 ‘호물며 우리양반 한헌선생(寒喧先生) 후예(後裔)로서 교남(嶠南)의 명족(名族)이요’ 중 밑줄 그은 부분에 착안하여 서흥 김씨임을 밝혀 내었다. 류해춘, 「19세기 <기수가>에 나타난 담론의 양상과 그 기능」, 앞 글, 54쪽.

12) 그 등의 하당택이 흔 말삼 하여시디/ 이 노림이 쉽조하니 기록(記錄)이나 흔여 두시/ 구람갓치 훗터지면 다시 못기 어려워라/ 이 가스 너여 보면 좌중면목(座中面目) 역역(歷歷)히리

었는데 거기에는 동참한 올케들을 논평하는 단락¹³⁾ 및 올케들에게 양반 시매 대접하는 잔치 한 번 개최하라고 요구하는 단락이¹⁴⁾ 있다. 이 두 단락이 동기가 되어 ~<G>가 연작되는데 그 담론 양상이 논쟁적이다. 무지, 무례한 시누들을 계도하고자 를 지었다거나¹⁵⁾ <G>가 창작의도를 올케들의 허물을 고쳐 선량한 인물로 거듭나게 하는데 두었다는 발언¹⁶⁾으로 이 점은 확인된다. 인용구절의 ‘괄목상대’와 ‘개과천선’은 문맥적으로 전의(轉義)된다. 곧 올케-시누 집단이 각각 자기편에서 요구하고 희망하는 상태나 차원에 이르러야 할 표준을 제시한 것이지 사회-문화적으로 공인된 것-사전적 의미-과는 거리가 있다. 윤리나 식견 면으로 상대를 제압하여 주눅들고 기죽이고자 구사한 어구라는 면에서 논쟁적 말하기의 한 단면이 된다. 내 편을 기롱하고 무함한 상대방의 가사를 대하고 통분한 나머지 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해 그들을 언변으로 굴복시키겠다는 <C>의 발언¹⁷⁾을 통해서도 규방가사가 언쟁의 중

13) 우리 말삼 더저두고 들오신 이 헤어 보즈/ 강누덕 노파덕아 호도 도롱(下道 嘲弄) 슬허마소/ 범손덕 허평덕은 명티 양반 아닐넌가/ 단동덕 병산덕은 한손(閑散) 양반 발명(發明)마소/ 오촌덕 상지덕은 아달 즈랑 너르 마소/ 동동덕 디야덕은 세간 소리 즈미(滋味)로쇠/ 스촌덕 각산덕은 음전 암전 교티(嬌態)마소/ 마천덕 김산덕은 동실동실 구슬갓니/ 지동덕 지동덕은 일가(一家)라고 즈세(藉勢)마소/ 도진덕 산당덕은 동향동서(同鄉同墻) 즈별(自別)호의/

14) 이보소 아으넌님 우리 말삼 드러 보소/ 자니들 제종동서(諸宗同墻) 어진 식덕 만나와서/ 부모님께 호도호고 가장(家長)들게 공경호며/ (중략) 면면(面面)이 추렴호여 우리들 가즌 전의/ 하로 노립 비설(排設)호고 양반 식의 더접(待接)호소/ 슈귀슈귀 호난 모양 우리 보기 가관(可觀)일쇠/. 지면을 아끼고자 이하에서도 인용할 적에는 이 방식대로 일부만 제시하기로 한다.

15) 우리를 분요(紛擾) 등의 이 가스 기록기느/ 미거(未舉)한 식미들을 형스(行事)를 가라치니/ 시시리 퍼어보면 유익함이 업슬소냐/ 일후의 바라기느 괄목상대(刮目相對) 원이로시

16) 유식(有識)호 이 너말삼 무식호 군지니가/ 호 말이나 아올넌가 문필(文筆) 조흔 남편니게/ 즈즈(字字)이 히득(解得)호여 기과천선(改過遷善) 할지이다/ 허물이 잇다 히도 곤침이 귀(貴)타더라

17) 니 숨숨 생각호니 그저 잇기 통분(痛忿)호다/ 짝근 부실 다시 썩여 축도변파(逐條辯破) 호즈 호니/ 니 도로혀 뇌뢰(磊磊)호여 디강(大綱)이나 이라리라

요한 매개체였음을 알 수 있다. 규방가사가 논쟁의 수단이란 새로운 역할을 맡았음을 <기수가>는 예증한다.

표현영역을 개척, 확장하는 가사 갈래의 잡종성 내지 포용성은 <A>를 ‘화수가’ 계통의 조형으로 상징할 수 있는 면으로서도 확인된다. 작품명 <기수가>에 한정한다면 ‘친정 온 부녀의 소회 표현’이라는 내용을 예단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을 천착하면 탄식가류와 화전가류의 요소들이 혼용되어 구분을 어렵게 한다. 텍스트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화전가류에 근접한다.¹⁸⁾ 한편 <A>는 화수가 계통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 논거로는 ① 종반(宗班), 종남, 존택, 종숙직, 자손 흥성 등 채택된 어휘들에서 일족의 친목을 다지려는 심의가 감지된다, ② 모임의 장소가 윤씨의 정신적 구심처가 되는 ‘영사재’며, ‘등거리가 근본이요 골늑스이 웃뜸이라<A>’라는 발언도 동족의 결속을 바라는 저의가 역력하다, ③ 특히 하루놀이를 위씨 명원 화수회에 비유한다¹⁹⁾, 등을 예거할 수 있다. <A>가 화수가류의 효시 작품일 가능성이 높아진다.²⁰⁾ 결론적으로

18) 권영철이 적출한 전형 화전가의 구조는 1. 序詞. 2. 身邊 歎息. 3. 봄의 讚美. 4. 놀이의 公論. 5. 擇日. 6. 通文 돌리기. 7. 舅姑 承諾 받기. 8. 準備. 9. 治粧. 10. 勝地 讚美. 11. 花煎 굽기. 12. 會食. 13. 遊興嘯詠. 14. 罷宴 感懷. 15. 離別과 再會期約. 16. 歸家. 17. 跋文 의 순서다. 權寧徹·朱貞垣 『花煎歌研究』(螢雪出版社, 1981), 45~58면. <A>를 단락별로 분단하면 아래와 같다. 1) 여자 운명에 忿憤. 2) 원근 형제들이 10여 년 만에 재회. 3) 宗男들에게 잔치 열기를 제의. 4) 비용을 추렴해 음식 장만. 5) 부녀자들만의 잔치 추진. 6) 모꼬지로 향하는 여인들의 치장과 자태. 7) 영사재와 그 배경 소묘. 8) 9명의 동류 개술. 9) 불참한 출가녀 推及. 10) 18명의 참석한 올케 점묘. 11) 성대한 잔치에 금지. 12) 덧없는 인생이므로 行樂하자. 13) 올케들더러 양반시매 대접할 잔치 요구. 14) 숙모와 여인의 언쟁. 15) 분위기 반전. 16) 파연과 가사 제작 17) 제상봉 기억. 둘을 대조하면 7할 정도 동질적 화제가 확인된다. <A>의 조형이 화전가류거나 혹은 그것과 접맥됨을 증언한다.

19) 위씨 명원(名園) 화수회(花樹會)들 여계서 더할소냐<A>. 위씨 명원(名園) 화수회(花樹會)에 부인네 그 놀런고<E>.

20) 규방가사 자료집을 대하면 <화수(답)가>라 표기한 작품들을 심심찮게 대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에서 개화기 시대의 유행어들이 빈번하게 사용된 점을 발견할 수 있어 <기수가>에 연대적으로 뒤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A>는 화수가 유와 논쟁형 가사를 파생시킨 모태로 기록될 일이다.

<기수가> 계통은 창작 시기가 음설 설 이후의 농한기였음을 규지할 수 있다. ‘기수가’란 작품명이 이미 귀녕을 제재로 지은 규방가사임을 상기한다면 친정 나들이가 창작의 필요조건이 된다. 전통사회에서 여인들의 근친은 <A>가 ‘10여 년만’이라 토로한 점을 미뤄 매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어렵사리 근친을 허락 받더라도 추석이나 혼인, 회갑 잔치 같은 시점에는 농번기였다 예방객과 하객들의 뒤치다꺼리로 오래 머무를 수도, 또 창작에 전념할 여유도 없다.²¹⁾ 그러나 정월 보름께는 저런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와 작품 창작의 심리적 배경이 조성된다. 규방가사의 하위 장르에 구애되지 않고 ‘정초의 밤’에 ‘가사 가락으로 영송’했던 향유 관습²²⁾이 <기수가>에서도 위력적이었다고 하겠다. <기수가>의 7편은 출가녀들의 설 귀녕을 계기로 연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화양동 윤씨가 양반 여성들 역시 규방가사 분포권의 그녀들처럼 교양 생활의 일부로 가사 창작에 열의를 보였다. <A>가 제작된 직후 가 출현했으며 그것에 반론코자 <C>가 등장했음을 볼 때, 그리고 올케들이 ‘면면이 가사’를 지어 시누들을 욕했다고 한 점²³⁾으로 유추하면 시누

<A>의 선형 화수가는 건문한 적이 없다. 하지만 문중 겨레붙이들이 문중의 기념될 만한 장소에 모여 문중의 질서와 유대, 화합과 결속을 도모코자 가사를 집단적으로 익혔다는 기록은 우리를 긴장시킨다. 魏伯珪(1727~98)의 <自悔歌>와 李商啓의 <草堂歌> 및 <人日歌> 같은 작품들은 18~9세기 농촌의 분화와 함께 해체되어 가는 가문을 결속시키려는 의도에서 산출되었다고 한다. 예의 작품들은 ‘사가회’, ‘가중사사회’ 같은 문중 조직을 통해 주로 남성 집단을 단일체로 묶는 촉매가 되었다는 것이다. 김창원, 『18~19세기 향촌 사족의 가문 결속과 가사의 소통』, 고한연 편, 『19세기 시가 문학의 탐구』(집문당, 1995), 313~337쪽. 화수가 계통은 추측컨대 위와 같은 문중 남성들의 향유물을 여성들의 그것으로 전환시키려는 충동에서 배태되었을 것인데 그 자세한 경위는 과제로 남겨둔다.

21) <권본전형화전가>의 다음 일절이 그 방증이 되어줄 것이다. 추석중기 세시때는 춘몽같이 만나보고/ 혼인잔치 회갑때는 번개같이 훌어나니. 권영철, 주정원, 앞 책, 49쪽.

22) 李源周, 『歌辭의 讀者』, 한국어문학회, 『朝鮮後期の 言語와 文學』(형설출판사, 1982), 158~159쪽. 133~166쪽.

-올케들이 직간접으로 가사 제작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A>를 하당택이 지었다 하지만 그가 대표 작자요 실상은 그 자리에 참여했던 시누들의 공동작이었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A>의 출현은 올케들의 집결과 토론 연후의 에 도달했을 것이며 그것은 다시 시누의 <D>창작을 충동했을 터인데 시누들의 분발심을 촉구하는 구절이 있는 점으로 미뤄²⁴⁾ 여럿 모인 가운데서 산출되었음을 암시한다. 한편 사촌택이 <E>와 <F>를 ‘혼즈 안자’ 지었다고 명기한 점도 주목된다. 규방가사는 여럿이 모여 짓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두 텍스트의 경우는 그와 다르게 개인이 고독하게 창작했음을 강조한 서술이란 의미다. 시누든 올케든 가사를 향유하는데 애정과 관심이 깊었으며 드물게 개인 단독으로 짓는 경우도 있었지만 동류들끼리 모여 숙의와 토론을 거쳐 한 편이 산생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음을 증언한다.

화양동 윤씨가에 세전되는 9편의 규방가사 중 하당택이 3편을 지었으며 규방가사 향유마당에서 그녀가 창작을 독려했던 장면을 회고하더라도 당시 그 집단에서 그녀의 위치가 어렴풋이나마 추정된다. 그러나 이런 점들로 그녀의 업적이 탕진되었다 하기는 어렵다. 그녀는 규방가사의 비평가로서 비평활동도 겸했다.²⁵⁾ 올케의 를 듣고 ‘기묘’, ‘절필’, ‘늦 늦치 궁구도다’ 등의 평가어를 구사하여 호평했는데 야유조가 섞였을망정 상당히 객관적이라 할 만하다. ‘기묘’가 텍스트의 내용이나 구조에 대한 판단이라면 나머지 둘은 논평 대상이 서체라 짐작된다. 평가의 기준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 비평을 가하는 비평안을 터득한 재단비평가였다고 할 만하다. 또한 그녀는 해당 집단에서의 우월한 작가적 역량도 자부

23) 풍편(風便)의 들린 소문 그 덕들 제종동서(諸宗同壻)/ 면면이 가사 지어 우리 욕설한다 하니/ 그 말이 적실(適實)한가.<D>

24) 억장지른 제종동서(諸宗同壻)/ 혼 말씀도 못 거드니 호승지심(好勝之心) 업단 말가/ 나도 또한 단문(短文)으로 치졸(稚拙)이야 하제마는/ 이 니마음 분분(忿憤)하여 이리저리 기적이니.

25) 그러하나 그 덕 가스 기묘(奇妙)하다 절파(絶筆)로써/ 디모반(玳瑁盤)의 구살 갖치 늦 늦치 궁그도다<C>/ 문장일네 문장일네 군네 문필 문장일네<D>.

하고 있다. 올케들이 10편의 가사나 장편으로 도발하면 한 편이나 한마디로 대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²⁶⁾ 집단 구성원들의 창작 능력을 숙지하고 있다는 의미 외에 자신의 기량이 그들을 능가한다는 자평도 숨었다. 규방가사에 관한 한 그녀가 독보적인 존재였음을 알려준다. 이상 여러 면들을 종합하면 하당택은 규방가사를 짓고 평가하고 짓기를 권유하면서 해당 향유집단을 선도했던 위치에 있었다고 하겠다.

2. 여권 의식의 성장과 반동

임병 양란을 경험한 뒤로 피지배층에서 자아 각성과 주체의식이 성장·발전했다 함은 상식이다. 엄정한 의리론과 명분론의 준수가 삶의 바른 도리라고 세뇌되었던 하층민들이 두 전란의 실질적인 참패로 성리학의 모순이 폭로되면서 자각한 결과였다. 사회의 보편적인 이런 추이와는 반대로 여권은 도리어 제어되고 억압되는 방향을 취했다. 17C 전반까지만 해도 남녀재산균분, 여손(윤회)봉사, 남귀여가(男歸女家)의 제도와 관습이 잔존하여 남녀간에는 여성 우위의 아니면 적어도 균등한 권리가 부여되었다. 그러다가 17C 후반에 이르자 가문의식의 고조와 함께 장자상속, 가부장제, 내외법이 복합적으로 강화되면서 여권은 실추했으며 단지 혈통 계승의 매개자나 노동력 제공자로만 평가되는 단계로 진입했다.²⁷⁾

반인간적, 비윤리적 저런 풍조가 오래 지탱될 수 없을 것은 충분히 짐작된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중인 여권신장세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는 논외로 미루자. 다만 <기수가>를 통해 향유자들이 어떤 사회, 문화적 권리를 어떻게 회복하려 노력했고 어떤 난관과 조우했던가를 구명하

26) 그 더들 열 가사를 니 혼 가사 당홀지요/ 그더들 빅 말 하면 니 혼 말노 우릴지라<D>.

27) 신영숙, 『한국가부장제의 사적 고찰』, 여성한국사회 연구회 편, 『여성·가족·사회』 창간호(열음사, 1991), 49~55쪽.

는데 집중기로 한다. <기수가>의 총체적 이해에 징검돌이 되어 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기수가>에서 <A>의 위치는 특별한데 규방가사의 상수로 꼽히는 ‘한탄’이란 면에서도 그렇다. 환언하면 이 텍스트는 여자들이기에 받아야 하는 제도적, 관습적 부당한 대우들을 다방면으로 환기시킨다. ‘한탄’이 심리적으로 순기능을 하든 역기능을 하든 우리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것들 이면에는 여권의식이 파리를 틀고 있으며 그것의 조종에 크게 좌우됨은 상식적이다. 외현된 한탄을 축으로 여권의식의 향배를 반추해 보자.

① 시집가면 부모동기와 헤어져 남의 집에 들어가 남은 생을 규중에서 골몰함이 분한스럽다고 했다.²⁸⁾ 인류가 생겨날 때에는 남녀가 1:1의 균등한 인권을 타고났음에도 남자는 너른 천지를 활동공간으로 삼아 유락하는데 여자는 좁고 어두운 규중 일에만 평생을 바치는 신세가 억울하고 원통하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남녀가 주종적(내지 존비적, 귀천적)인 관계를 원론에 입각한 상보적 관계로 논박하고 있다.

② 이와 관련하여 남성:여성의 관계에서 여성이 자주성 내지 능동성을 발휘하는 면도 주목된다.²⁹⁾ 집안 남자들과 공동 잔치를 계획했으나 그들이 잔치 경비를 감당한 대가로 어른 대접을 희망하자 그것을 묵살함과 동시에 잔치에서 배제시켰다. 전통적인 남녀관계 혹은 내외법을 극복한 면모다. 고래의 위세와 근엄을 견지하려는 남성은 매우 보수적이다. 그들은 단지 남자라는 조건으로 존대와 공경을 강요한다. 여기에 반해 여성은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다. 남자들의 행태, 곧 지난날의 관행을 시

28) 건곤(乾坤)이 조판후(肇判後)의 음양(陰陽)이 갈렸느니/ 스람이 숨겼나니 일남 일여(一男一女) 뿐이로다/(중략) 규동골물(閨中汨沒) 지니노이 너른 천지 웅식((天地 壅塞)하다/분분(忿憤)하다 이 세상이 예도 이스 제도 이스/

29) 이보소 종남(宗男)들아/ 이런 노림 쉽잔하니 스양(辭讓)말고 간검(看儉)하소/ 저 종남(宗男)들 거동(舉動)보세 벌떼갓치 너달아서 / 팔쪽을 썩슈리며 다란 말슴 다하나마/(중략) 십부고 가소롭다 너희업서 못놀소나/ 파츠(彼此) 이리 조롱(嘲弄)하나 남미간(男妹間)이 흠이 업니/

쁘고 가소롭다 여길 정도로 진취적이다. 남매간의 조롱이라 흠이 될 수 없다며 비록 사족을 달았으나 오히려 진정으로 들린다. 남자들에게 건의하여 허락을 받아낸 후 행사를 진행시키던 피동적 자세에서 주도적 그것으로 전환했다. 여성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자아실현의 한 단면으로 읽힌다.³⁰⁾

③ 남성들과 공평하게 문자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문교 정책의 제도와 습속의 미비점을 꼬집었다.³¹⁾ 남자로 태어났다면 현판에 올릴 정도의 표현력이 있음을 자부하는 한편 그 시문들을 독해하지 못하는 현 상태를 자조하고 있다.³²⁾ 현판을 울긋불긋 칠한 그림판과 동일시할 것이 아니라 문자판으로 대면할 수 있는 상태가 당위임을 그녀는 내심 선언한다. 종래의 편파적인 문자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식의 한 면모라 하겠다.

④ 노동과 행락의 균형 잡힌 삶이 보람차고도 의미 있는 인생이라 역설한 점에서 삶을 관조한 화자의 달관이 드러난다.³³⁾ 재물이 삶의 전부요 그것의 다과가 인물의 잣대가 되는 자본주의의 천박성을 그녀는 투시하고 있다.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그것의 주인으로 군림할 것을 주문하는 점에서 건전한 물질 관념을 소유했다 하겠다.³⁴⁾

30) 19세기 내방가사에서 ‘자유, 평등의 근대적 의식’의 추이를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한 나정순의 제의에 시사 받은 바 크다. 나정순, 『내방가사의 문학과 여성 인식』, 『고전문학연구』 10(1995, 12), 293쪽.

31) 우리도 남지런들 글리나 지어볼 걸/ 벽생(壁上)의 현판(懸板) 글시 여자 보기 단청(丹青)일쇠/

32) 양반가 아녀자들은 내방에서 국문을 습득하며, 한자·한문은 통상 부녀자들의 예의 범절에 관련된 기초 상식을 개괄적으로 부조들에게 배우거나 듣는 정도로 만족한다. 화자도 이런 수준에 있음을 <A>가 증언한다. 그렇지만 그녀는 지금의 상태가 불만이다. 현판의 내용을 독해함은 물론 자신이 그것의 작자일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섬을 정상이라 보고 있다.

33) 가소롭다 우리 인성 빅 연이 얼마런고/ 풀넛헤 이실이요 물우헤 거품이라/ 흙물며 이세상의 아니 노든 못흐리라/ 우웁도다 우웁도다 즈즈골골(孜孜汨汨) 세상 사람/ 지물만 등케 알고 저먹을 모라난고

34) <僧元歌>를 비롯한 가사 작품들에 흔하므로 관용어구로 인정, 평가 절하할 수

⑤ 관찰자 시점³⁵⁾에 의존해 ‘노인’과 ‘여편네’간의 논쟁을 서술한 장면과 그것을 조율하는 화자의 태도³⁶⁾가 여권의식의 진전된 일단을 암시한다. 등장한 인물 자체가 이미 보수와 진보란 관계를 짐작케 한다. 평소 여자 직분을 충실히⁷ 수행했다는 이유로 신명껏 놀려는 욕망을 ‘꽃밭’에, 그것을 제재하려는 어른들의 경계를 ‘불’로 비유하여 대립적인 성격을 부각시켰다. 서술자는 이런 급랭한 분위기를 ‘놀이만 하여보시’로 타개하려 든다. 어느 편을 지지하고 반대했는지 모호하다. 머쓱해진 분위기를 일단 전환시켜 놓고 보자는 노력으로 일차 해석된다. 더 나아가면 언쟁이 일기 전의 상태로 돌이키자는 저의도 들어 있다. 그래서 젊은 층의 의식 쪽으로 경사된 발언이요 지향이었다 하겠다.

⑥ 이날에는 척사 대신 ‘만단설화’가 놀이의 주된 레퍼토리였다.³⁷⁾ 그것의 내용에는 개인들이 평소 지어두었던 가사의 음영을 비롯해 다양한 화제가 대두했을 것이다. 성토장이나 공론장이 되어 수구적 가치관과 진보적 그것들이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발상과 의식에 변화가 따랐을 것이다. 잔치 그 자체는 참여자에 따라 정도나 방향은 다를지언정 의식의 충

도 있다. 그러나 서술자가 단지 작품의 길이나 권위를 염두에 두고 인용했다 보기는 어렵다. 문맥이나 상황에 적절한 차용이므로 이런 해석이 오히려 공정할 것이다. 저 텍스트에서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이렇다. 곰곰이 주어 모아 몇 백년 살라 하고(困困而拾我會我 幾百年生何古)/財物不足心은 천자라도 없잔나니(財物不足心隱 天子羅道無殘難而)/ 탐욕심을 후리치고 정신을 떨쳐내어(貪慾心乙 揮耳治古 精神乙振體出余)/기묘한 산수간에 물외인이 되려문다(奇妙旱山水間涯 物外人而道汝文多). 이상 원문과 번역은 김중우 『나옹과 그의 가사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회, 『국문학연구총서』 3(정음문화사, 1986), 260~261쪽.

35) 이 용어의 정의와 용례에 대해서는 서영숙, 『여성가사연구』, 앞 책, 76~86쪽 참조.

36) 좌상의 노인분니 혼 말씀 나리시디/ 여즈 몸이 되어나서 방탕하여 쓸 더 있나/ 남 활량이 잇것마는 여 활량이 불가하다/ 좌중에 혼 여편네 니달아 하는 마리/ (중략) 야속하다 어른 말씀 싯밧에 불이로새/ 이 말 저 말 더저 두고 놀기만 하여보시/

37) 이러타시 먹어시니 아니놀고 무엇하리/ 늦갓치 놀여니와 척사판(擲柶板)을 다령(待令)혼가/ 아스라 다 바리고 만단설화(萬端說話) 하여 보되

격과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기능했을 것이다.

⑦ 친정에서의 생활과 의식 전부가 여권의식의 활성화란 등식도 가능할 듯하다. 시가에서는 항상 ‘지엄한 명령’을 승순하고 인종하며 삶이 부녀자들의 미덕이면서 윤리였다. 귀머거리 삼 년, 병어리 삼 년은 그런 삶의 표본이다. 사고와 행동에서의 주체성, 독자성은 실종되고 매몰된 삶이었다. 그러나 근친 온 수일간은 그것과 반대편에 놓인다. 검열 혹은 억압 기제가 없거나 매우 느슨하게 작동하는 시공간이다. 무의식을 포함한 정신계가 친정 식구들의 묵인과 용납하에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인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 평소 원망이 충족된다.³⁸⁾ 따라서 친정에서의 시누들의 처신은 곧 그녀들의 의식의 개방 상태이며 지향했던 의식의 초상이라 일러 무방할 것이다.

⑧ 화자-청자의 관계가 보편적으로 남성 가사에서는 나(I):남(He)임에 비해 규방가사에서는 나(I):나(딸, 분신)임이 밝혀졌다.³⁹⁾ <기수가>에서도 이런 정식은 통용된다. 그러나 <E>와 <G>의 한 단락에서는 나(I):남(He) 관계를 형성한다.⁴⁰⁾ 거기서 화자는 비록 독백체일망정 ‘한손양반’의 과도한 참견을 불평한다. 남성을 모멸하는 태도가 상대를 ‘저’라는 호칭으로 현시된다. 문중의 양반 남성 통제와 감시에서 일탈하려는 여권의식의 미동이라 하겠다.

이상 <A>를 중심으로 19세기 후반 한 향촌 양반 여성들의 한탄과 함수 관계를 이루는 여권의식을 검토해 보았다. 현재의 제도나 여건에 불만을 품거나 미약하나마 반발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여권의식에 대

38) 구체적인 예들을 <E>에서 만날 수 있다. 그 서술자는 시집은 시누들의 언동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묘사하거나 논평한다. 그러나 시누들의 입장에 서면 억압되고 통제된 원망의 자연스런 발로며 성취라 할 수 있겠다.

39) 신은경, 『朝鮮朝 女性 텍스트에 대한 페미니즘적 조명』, 강금숙 외, 『한국페미니즘의 시학』(동화서적, 1966), 32~40쪽.

40) 아스라 이런 말도 함부도록 하지 마쇠/ 한손 양반 썩이 말나 꼬감꼬감 감아 두고/(중략) 그런 소리 저런 소리 안 듯기는 못 하니라<E>. 썩마르다 한손양반 이런 말습 노(怒)아 마소<G>.

한 자성이요 개명이라 볼 만하다. 그러나 <A>가 표백하는 예의 여권의 식 세목들이 해당책을 비롯한 화양동 윤씨가 양반 여성들의 고유한 사유였다 단정하기는 주저된다.⁴¹⁾ 익히 알고 있듯 <A>의 등장과 비슷한 시기에 출현한 규방가사들은 여권의식을 함축한 한탄을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진술했다.⁴²⁾ 그들이 <A>와 정확히 중첩하는지 그것만의 고유한 주장이 들었는지 분별하는 작업은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A>도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당대에 산출된 텍스트들에서 보편적으로 포착되는 한탄 곧 여권의식을 표방했다 하는 것으로 만족할 일이다.

이렇듯 <A>가 규방가사의 일반적 사조에 부응하며 여권의식의 성장에 우호적이거나 동조하는데 반해 에 이르면 반전의 양상을 보인다. 화자는 여자의 직분-어른 공경, 자손 훈계, 치산, 방적, 온유한 행동, 유순한 심성-이란 준거를 들어 <A>의 화자와 대립한다.⁴³⁾ 여자의 직분이란 관점에서 친정 온 시누들의 처신을 조목조목 힐책한다. 그녀가 힐책의 준거으로 내세운 여자 직분이란 중세 명분론적 사고에 입각해서 확정된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들이다. 거기에는 사명 혹은 임무들만 나열되었지 자유나 권리 항목이 없다. 만들고 성취할 복락이 가능한 세계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허락된 분복만 누려야 한다는 결정론적 운명을 신빙하는 폐쇄적 세계다. <A>에 대한 반동이다. 그것은 <E>에서 증폭된다. 가 친정과 잔치에서 시누들이 보인 언동을 표면적으로 비난했다면 <E>에서는 여기에도 문중 나들이의 행태까지 첨가해서 더욱 세밀하게,

41) 19세기 여성화자들이 비판과 도전의 의식을 규방가사로 표출했다는 연구 성과가 참조가 된다. 정기운, 「규방가사에 나타난 화자의 의식 변화 연구」 경성대 교육대학원(1999), 59~79쪽.

42) 진술의 대상과 방식에 관해서는 권영철이 탁월한 성과를 제시했다. 權寧徹, 『閨房歌詞에 나타난 身邊歎息類의 研究』, 『閨房歌詞』-신변탄식류-(曉大出版部, 1985), 17~94쪽.

43) 요보 저종(諸宗) 식미들아 우리 말씀 즈세 듯소/ 여즈 몸이 되엇거든 여즈 죽분(職分) 홀지어다/ 어른을 공경호고 즈손을 훈계호며/ 치손도 흐려니와 방적(紡績)을 힘을 씨오/ 온유(溫雍)호 흥동거지 유순(柔順)호 심성으로/(하략) .

그리고 사실적으로 혈똥었다. 시누들을 ‘호걸’, ‘왈자’, ‘여 한량’에 비유함으로써 미풍양속을 괴란시키는 존재로, 환연하면 전통적인 사유와 문화에 적대적인 인물들로 상정한 것이다.

하당택은 <D>에 이르러 ‘잘못’, ‘후회’ 등의 어휘가 시사하듯 여권의식을 물리게 된다. 그녀는 <A>를 통해 잔치놀음을 기록화로 남기고자 했고 <C>를 통해 인정 물태를 사실대로 그려보려 했다. 그녀의 진심은 여기에 있었다. 이런 의지는 거짓으로라도 칭찬하면 호의를 갖는 속세 인심을 거역한 일이다. 우리 문맥으로는 여권의식을 작동시켜 본 셈이다. 그러나 본의와는 다르게 전자는 조롱과 해담(諧談)으로 미만된 화답가를 양산했고, 후자는 일촉즉발의 경색된 집안 분위기를 조성했다. 곧 여권의식이 예기치 못한 난관과 조우한 것이다. 결국 그녀는 지난 일을 과오라고 승복함으로써 더 큰 파국을 피하려 했다. 여권의식의 실천자로 나서기보다는 그것을 포기하고 단념함으로써 가문의 평온, 확대하면 중세 사회의 안정을 기구한 셈이다. 여권의식의 반동 역시 대단한 세력이 었다 하겠으며 중세 사회가 그 후 얼마간 연명한 것도 여기에 기인한 몫이 클 것이다.

여권의식의 퇴영은 가문 의식에서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싶다. 시누들이 먼저 자기 시댁은 양반이라 자처한 데서 촉발된 가문의식은 여성 의식의 반동적인 면을 양각시키는데 오히려 기여하고 있다. <F>의 서술자는 전의 이씨(하당아씨의 시댁), 신평 전씨(신평아씨의 시댁), 학동 박씨(학동 아씨) 등등 시누들의 시댁이 ‘서푼짜리 양반, 개꼬리 양반’이라며 개괄적으로 전력이 의심스럽다고 비하했다. 그러자 <G>에서는 다채로운 세목들을 들어 역공을 편다. 예컨대 전의 이씨는 임금의 자필 사액, 신평 전씨는 세덕, 학동 박씨는 문필 등의 방식이다(다음 장에서 상론된다). 시누건 올케건 자타의 가문 전력에 자세한 까닭은 출가 전 어른들로부터 습득한 보학(譜學)에 기인한다고 한다. 초면의 인사를 나누면 10대조 이상까지 연비(聯臂) 관계를 따져 일가친척 여부를 판별하는

절차가 따랐고, 그런 상황을 지켜보며 성장한 자녀들은 부지불식간에 나와 남의 족보에 해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⁴⁴⁾ <E>와 <G>의 서술자들이 자매나 동서들의 시댁과 친정의 내력에 이처럼 통효한 듯한 태도는 바로 저런 학습의 효과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점은 그들 발언의 진위여부, 곧 사실에 기초한 내용이나 아니면 골리고 눌러주려 조작한 것이냐에 있지 않다. 가문의식에 인질과 포로가 된 그녀들의 의식이 문제인 것이다. 환언하면 그녀들이 자랑하고 존경하는 가문일수록 여권의식은 역으로 제어되고 위축된다는 사실이다. 양반 가문 출신이거나 그런 가문에 산다는 것은 인고와 순종의 숙련자이며 그만큼 자아 실현을 유기했거나 유보했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전통과 혁신, 성장과 반동, 명제와 반명제가 공존하면서 상쟁하던 여권의식의 초상을 <기수가>에서 대면할 수 있다. 거시적으로 19세기 후반이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혹은 과도기라서 저런 현상이 포착된다고 단언하기에는 주저된다. 어느 시대와 공간을 넘어 인간세계에서 목도되는 신구 세대간 관점의 충돌, 가치관의 혼효, 사상의 전진과 회방 등의 보편적 현상 이상의 의의를 부여하기에는 곤란할 듯하다. 그 정도로 여권의식은 미미했고 역으로 복고적 성향이 오히려 지지받는 시대였다고 하겠다. 이 점은 향촌 사녀들을 향유층으로 생산된 텍스트의 미학이면서 한계가 아닐까 한다.

3. 양반 편만의 배경 노정

<기수가>에는 하당댁, 김산댁, 사촌댁 등 택호가 붙은 여인들과 그녀들의 시댁 및 친정 식구들, 그리고 노비들만 등장한다.⁴⁵⁾ 양반 가정을

44) 權寧徹, 『閨房歌詞研究』(二友出版社, 1980), 61~62쪽.

45) 좌정(坐定)하기 밧마온다 시비(侍婢) 불너 설석(設席)하니(A). 비즈(婢子)들 왕니(往來) 편의 무려본들 무엇 하니(F). 강누아씨 노파아씨 연들 보니 오소 히라(F). 디밧골 산청아씨 승교(乘轎)군을 썩윗는가(F). 아희들 연동(從)까지 구경군 동니 사람(F).

함부로 부르는데 따르는 불편함을 덜고자 안출된 것이 택호⁴⁶⁾라 한다면 <기수가>는 양반과 천민의 두 계층과 연관된 소재만 취급한 셈이다. 아니 노비라 해도 술거노비만, 그것도 극히 부분적으로만 언급되고 있으므로 양반층의 사유와 행위가 <기수가> 제재의 전부라 일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우문일지 모르나 왜 조선 시대 뚜렷한 신분층이었던 중서 및 상민층이 <기수가>에서 제외되었을까 라고 회의할 수 있다. 두 가지 답이 예상될 터인즉 ① 규방가사가 본래 양반 부인들이 전유했던 갈래이므로 굳이 중인 이하의 사안에 참견할 필요가 없었다, ② <기수가>가 창작된 19세기 후반에는 종래의 신분 구분이 해이해져 양반과 천민 두 신분층만 유지되었다, 가 그들이다. 자신들의 독특한 미의식과 계층 의식이 하층 부녀자들의 민요 가락과 정합하지 못했으므로 양반부인들이 규방가사 갈래를 개발, 향유했다는 발생론적 입장을 견지하면 ①은 쉽게 동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기수가>의 작품 세계에 대입하면 ①은 흔들린다. 시누와 올케가 공통적으로 화양동 파평 윤씨 가문은 ‘교남 대반(大班)’임을 수궁하면서도 상대방의 친정 및 시댁이 양반이나 여부를 두고 격렬하게 논쟁함이 <기수가>의 핵심 화제들 가운데 하나다. 이 사태는 양반으로서의 정통성과 지체가 확고한 가문끼리 통혼하던 시기에는 상상조차 불허하던 일이다. 한다면 올케 친정이든 시누 시댁이든 양반으로 자처한, 환언하면 상·천민층에서 발신한 가문이 섞였다는 징표다. 상·천민 신분에 서 이미 규방가사를 익혔다는 얘기가 된다. 나아가 양반 가문임을 공인해주던 전통적 준거들이 불신 내지 폐기되고 새로운 그것들이 수립되던 격변기의 상황을 투영한다고도 보겠다. ②는 이런 시대적 변동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앞의 물음에 적절한 것이다. 따라서 <기수가>는 규방가사로 분류될지언정 기실 그 향유층은 형해화된 계층관념만 존속하던 시기의 양반층이었다 해야할 것이다.⁴⁷⁾

46) 오영교, 『조선후기사회사연구』(혜안, 2005), 219쪽.

47) 사족일지 모르지만 이른바 서민 가사의 작자층을 두고 제기된 異見을 여기서 짚어봄도 흥미로울 듯하다. 김대행은 하층민들의 체험과 정서를 표현한 일군의

<기수가>의 서술자들은 너도나도 양반이라 행세하는 세태, 좁혀 말하면 올케들이 친절을, 시누들이 시댁을 각각 양반이라 주장하는 현실을 혐오하고 개탄한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혈연이나 벼슬, 그리고 공훈으로 양반임을 공인 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날만 새면 서로가 양반이라 도도하게 구는 군상들에게 아연한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민으로 굶실거리던 인물들이 하루아침에 양반 대접하라며 급수를 높이는 형국에 서술자들은 양반에 걸려 못살겠노라 푸념한다.⁴⁸⁾ 이렇듯 근거도 내력도 불명하게 돌출한 양반들에게 상응하는 대접을 해 주고자 화자들은 새로운 유형의 양반을 안출하거나 ‘양반’이란 용어 의미를 새롭게 매기기도 한다. ‘세 푼 짜리 양반’, ‘세달 돈 양반’, ‘민지 양반’이 전자다.⁴⁹⁾ 3돈 혹은 5돈 등 아주 적은 금전을 써서 양반신분을 매수했거나 그것조차 지불하지 않은 채 양반으로 거들먹거리는 인물들을 저렇게 불렀던 것이다. 한편 저들에게 문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자⁵⁰⁾로서의 양반이란 호칭은 부당하다 여긴 나머지 화폐 단위에 가탁해 1양+5푼(반 양)의 합성어로 풀이하거나 ‘한량’의 ‘양’에 ‘죄반죄반’의 ‘반’을 떼어 합성한 ‘양반’으로 풀이했다.⁵¹⁾ 야유나 모멸을 통한 풍자의 한 기법으로 이해된다. 야비하고

가사들을 ‘ 읊는(詠) 향유방식에 주목하여 중서층으로 그 작가를 상정했다. 김문기가 하층민으로 그 작가층을 추단한데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서였다. 중인층이나 농공상의 상민층이 <기수가>에 이르면 위에서 보았듯 해체된다. 양반층과 극소수의 천민층만 잔존하는 시점에서 과연 신분관념이 맹렬하던 시기의 계층준별을 원용함이 타당할지 의문스럽다. 때문에 하층민들의 생활을 진술한 가사 작품들은 규방가사의 미학적 관습을 습득한 기층민들의 저작으로 인정함이 순리로울 듯하다.

김문기, 『서민가사연구』(형설출판사, 1983), 14~17쪽.

김대행, 『가사양식의 문화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3집(1998, 6), 409~414쪽.

48) 에구세라 양반 보소 평생의 불문불견(不聞不見)/난디업는 시 양반이 둘들이 닛 덧고야/양반 걸여 못살것네(B).

49) 양반도 만홀시고/ 서푼 짜리 양반님니 게꼬리만 양반님니(E). 가소롭다 이 분네야 아나 옛다 양반 즈랑/ 셋닷돈이 양반인가 민디양반 우읍도다(G).

50) 李章熙, 『朝鮮時代 선비 研究』(博英社, 1989), 10~11쪽.

51) 지 파라 혼 양 밧고 듯 파라 닷 돈 바다/ 두루도루 듀어 모하 그리셔 양반인가/

도 부정한 방법으로 자천타천 양반이라 용인된 가문과 인물들이 득실거리는 향촌의 현실에 거역하는 화자의 모습이 선명해진다. 향촌에도 양반이 범람한다는 <기수가> 서술자들의 이런 토로가 과장 내지 허구인지 아니면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 새삼스럽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기수가>의 진술 양식 및 역사학계의 연구성과, 두 방향에서 용이하게 그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수가>가 경험적 사실의 진술을 원리로, 그리고 ~<G>가 논쟁적 담론이란 점으로 담론 내용이 일차 사실이란 점을 신뢰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상대방이 간과하리라는 모험으로 조작이나 허위에 근거한 주장을 펼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 간과당한다면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런 위험을 자초하지는 않을 터이다. <기수가> 자체에서 이렇듯 진술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는데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는 여기에 무게를 실어 준다. 울산부호적 대장을 근거로 신분 계층별 인구 변동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1729년도 양반 비율은 19.39%였는데 1876년에 이르면 67.07%였다고 한다.⁵²⁾ 그런데 이런 수치는 관청에서 기록한 공식 문서에 준한 결과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을 터인즉 실제로는 저 비율을 훨씬 상회했으리라 판단된다. 특히 후대로 갈수록 증가율은 빨라질 것이므로 <기수가>가 창작된 1876년에는 ‘양반 결여 못술것네’라는 푸념이 결코 공소하다 할 수는 없다. <기수가>는 양반이 폭발적으로 증대된 현실을 실증적으로 진술했다 하겠다.

그렇다면 양반이, 그것도 유명무실한 양반이 조선 후기 들어 격증한 배경이 무엇일까? 양반이 누리는 특권⁵³⁾을 다반사로 지켜본 상천들이

홀낭(閑良)이란 양짜 밋헤 죄반죄반 반짜 부쳐/ 이 즈(字) 저 즈 어울너서 그러서 양반인가(E)

52) 鄭奭鍾, 『朝鮮後期社會變動研究』(一潮閣, 1984), 249쪽.

53) 제도나 관행을 기록한 문건을 통해 당대 양반이 향유한 특권 양상을 정리함이 공정하겠으나 필자가 전문하지 못했다. 차선택이긴 하나 박지원의 <양반전>을 통해 당대 사정을 살피기로 한다. 허구성이 농후하나 오히려 진실에 더욱 근접했다란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戶長讀既畢 富人 悵然久之曰 兩班 只此而已耶

신분 상승 욕구로 갈급할 것은 인간의 상정이다. 그들은 그 욕구를 충족 시키고자 다방면으로 부심했을 것인데 우선 역사 사회학 쪽의 견해를 들어보기로 하자. 그 분야에서는 이 시기 들어 상한이 양반으로 상승하는 경로는 크게 둘이었다고 한다. 향임직으로의 진출이 하나요 군역의 면제가 나머지였다. 상한들은 농업 기술의 발달로 경영형 부농이 되었고, 상품화폐 경제의 진척으로 요부민(饒富民)이 되었다. 노론층의 세도 정치는 지방 사족, 특히 영남 남인들의 기세를 꺾고자 그들의 수족이 되는 수령들을 이 지방에 배치했으며 그들은 요민들을 이향직(吏鄕職)으로 진출시켜 주는 대신 대가로 그들의 재물을 가로채었다. 군역은 양역(良役)이었다. 따라서 군역에서의 제외는 양반의 징표였다.⁵⁴⁾ 양인들은 역시 재력을 기반으로 두 갈래 길을 통해 군역을 회피했는데 하나는 양반임을 모칭(冒稱)하거냐⁵⁵⁾ 이향직으로 진출함이요⁵⁶⁾ 다른 하나는 토호와 교원, 계방촌(契房村) 등에 투탁하여 혈역(歇役)하는 경우였다. 전자는 물론이거니와 후자들조차 양반으로 행세함으로써 향촌이 양반 지천

吾聞兩班如神仙 審如是大乾沒 願改爲可利 於是 乃更作卷曰 維天生民 其民有四 四民之中 最貴者士 稱以兩班 利莫大矣 不耕不商 粗涉文史 大決文科 小成進士 文科紅牌 不過二尺 百物備且維錢之橐 進士四十 乃筵初仕 猶爲名陰 善事雄南 耳白傘風 腹蟠鈴諾 室珥治妓 庭穀鳴鶴 窮士居鄕 有能武斷 先耕隣牛 借耘里氓 孰敢慢我 灰灌汝鼻 彙髻汰鬢 無敢怨咨. 『燕岩集』 권 8.

54) 부정한 방법으로 군역을 회피한 뒤 혹 탄로 날까 봐 우려하던 형국을 인용절로 확인할 수 있다. 지닌 가을 충군(充軍)할 제 군들네나 마것던가/ 울 봄에도 점고(點考)란네 마음들 노치 마소<E>.

55) 두드러진 예로 幼學, 校院生, 軍官, 將校, 璿波, 勳族 등으로 자칭한 경우가 된다고 한다.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연구』(서울대출판부, 1998), 186면.

56) 본래는 校生, 鄕吏, 平民子弟 등을 ‘閑散方外’ 또는 ‘方外閑散人’이라 호칭했다. [韓永愚, 『朝鮮時代身分史研究』(集文堂, 1997), 66~67쪽]. ‘방외’가 중인 계층의 표시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양반’으로 교체되어 ‘한산양반’으로 표기되는데 이는 곧 중인들이 양반으로 진입한 신분변동을 상징한다. ‘단동덕 병산덕은 한산(閑散) 양반 발명(發明)마소<A>’. ‘흔산(閑散) 양반 웃지마소/ 경상도 팔흔산(八閑散)의 드는 답이 땃 답인고<E>’와 같은 인용 시구들에서 그런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으로 변모하게 되었다.⁵⁷⁾

역사학계가 탐구한 양반 상층의 두 경로를 <기수가>에 대입하면 간간이 인용한 점으로 알 수 있듯 부분만 만족시킨다. 별의별 논리나 배경으로 양반임을 호언하는 가문들이 출현했음을 시누들은 올케의 친정을, 올케들은 시누의 시택을 각각 조롱하는 가운데서 폭로된다. 여기에는 물론 어떻게 하든 상대방의 하자나 흠집을 잡아 추락시키겠다는 저의에서 진술에 과장적 표현의 개연성이 고려되어야겠지만 그것도 이전 시기나 당대에 모형이 존재했기에 가능했으리라. 양반 신분의 진입에 어떤 방편들이 동원되었던가를 <기수가> 분석을 통해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C>와<D>, <F>는 배제되었는데 전적으로 현재 논의에 유용한 정보가 빈약하거나 없기 때문이다.

<표1> 양반신분 입증 준거들⁵⁸⁾

작품명 약호 시누 시택	<A>		<E>	<G>
하당집(전의 이씨)	새치가 보임	好家舍	물심으로 지방관 섬김	어필 사액 霞 鵞亭
관동집(관동 이씨)	쟁그린 얼굴	나락 석	물질적 富饒로 양반 자 처	천석만석
부산집(신곡 장씨)	”	산협 삶	대대로 침체	春桂榜 4代
신평집(신평 전씨)	자녀 자랑	進士 狀	全氏라는 姓	世德
거평집(상산 김씨)	”		현달한 인물과 동향	산 정기

57) 이상 향촌 사회 양반 수의 급격한 증가 요인 추단은 고석규, 앞 책, 135~216면에 크게 힘입었다.

58) 논급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사실은 공란으로 남겨두었다. <E>에서 부산집과 신곡집(신드아씨)은 혼란을 일으킨 것 같다. 부산아씨에 대한 설명어구 “거창양반 아진 지리 쏜디도 아니 나네/ 몇 천 연 지닌 후의 가조가 왕도(王都)란다/ 굿더를 당히거든 도성 안의 드러 안자/ 춤의 춤판 판서 정승 할덜거든 ㅎ여보소”는 신곡집(신드아씨)에 대한 진술이고 반대로 “선생 즈손 말도 마소 멀고면 시골 양반/ 디더로 침체(沈滯)ㅎ여 칠팔월 은어 고덜/ 소고리로 잉어 쓰기 게알탕 건 걸엿고나/ 그 유세(有勢)로 양반인가”란 서술은 부산집에 대한 표현으로 보아야 및 <G>와 연결된다. 그래서 표도 바꾼 것을 근간으로 삼았다.

학동집(학골 박씨)	중늬은이	文筆	중시조가 동당 연벽 초시	文望
신안집(신안 조씨)	시택 자랑	신랑	萬山枯木 一葉靑	人望
오산집(반남 박씨)	下道 소리	충청도	서울이 가까운 곳	世德
신곡집()	上狀편지 지님	탕건	가조가 왕도 되면 양반 가능	
총평	가관이다	걸리는 게 양반	서푼자리 양반, 개꼬리만 양반	

<A>→<G> 방향을 취할수록 상대방의 가문을 폄하하는 강도는 고조되고 비례하여 양반이라 부른 논리는 치밀하면서도 설득적이다.⁵⁹⁾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A>와 이하가 창작의 의도 내지 목적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전자는 하루 놀이 모임의 특이한 장면들을 기록해 훗날 기억의 보조 자료로 삼겠다는, 일종의 기록화를 겨냥해 지었다. 동류나 율케들의 가문에 대한 서술이 분편적이거나 소략함은 대체로 여기에 말미암는다. 그러나 후자는 가 논쟁을 촉발한 이래 <G>에 이르기까지 쟁론으로 일관한다. <표1>에 나타난 와 <E>는 시누들의 시택이 부실하거나 공허한 논거 혹은 논리로 양반임을 자랑한다고 율케들이 공박한 발언들의 요점이요 <G>는 시누들의 시택이 근본 있는 가문임을 변호하는 논지다. <G>는 시누들의 시택 자랑과 율케들의 친정 폄훼가 내용 전부를 이룰 정도로 논쟁적이다. <G>가 공인받는 양반의 범위⁶⁰⁾

59) 관동집(관동이씨)을 예로 살펴보자. 에서는 ‘세력 조흔 관동딕은 나락 석이 양반인가’라 하여 단순히 재산 규모가 커서 양반이라 불린다고 했다. <E>에 이르면 ‘장허다 관동아씨 양반인들 범연(泛然)홍가/나락 석을 성(城)을 싸고 그 안에 안죽고나/ 성 안의 안진 양반 양반 자처(自處) 고이촌타’처럼 거부임을 과장적으로 표현한 후 그 안에서나 양반행세 하라고 비아냥거린다. <G>에 오면 다시 ‘한림 학스(翰林學士) 간디 이나 나락 섬은 말도 마소/ 화봉삼축(華封三祝) 요(堯)임군도 부즈(富者)를 축원하고/ 홍범오복(洪範五福) 기자성인(箕子聖人) 이왈 부(富)라 허여시니/ 천석 만석 관동 니씨 오복삼축(五福三祝: 壽, 富貴, 多男) 갓초왔니’로 확인할 수 있듯 전고를 적절히 인용해 자기 논리에 무게를 싣고 있다.

60) 종종 연간에 설정된 양반의 범주는 이렇다. 자신이 생원이나 진사인 자, 내외에

에 맞추어 시누들의 시대를 논평하려 노력함이 역력한 가운데서도 관동 이씨와 상산 김씨는 당대의 시류에 편승한 듯하다. 이씨는 어느 신분에서 출발했든 큰 부자라면 양반으로 인식했던 사회의 통념을 반영한다. 소순과 그 두 아들 식 및 철이 목가 삼봉의 원기를 받아서 당송8대가로 문명을 날렸듯 김씨 문중도 비계산 정맥을 받아 양반으로 떨친다고 후자에서 주장했다.⁶¹⁾ 김씨가 재산을 바탕으로 여러 향임직을 맡게 되자 출세의 배경을 물색하던 중 소 삼 부자에 결부시켜 이런 군색스런 해명을 내놓지 않았을까 한다. 이처럼 <G>의 서술자는 전통적인 양반 기준을 존중하되 도저히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중론이나 주관에 따라 양반으로 불렀던 사정을 발설한다. 친구 가치관의 혼재 내지 공존 양상을 보인다고 하겠다.

<G>의 이런 태도와는 달리 와 <E>는 실질이 없는 전언 혹은 조상 대의 성예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선대 어느 누가 양반 반열에 진 입했거나 혹은 불후의 공적을 남겼더라도 그것을 구실로 양반가문이라 내세우는 풍조를 비난한다. 대신 <E>의 서술자는 양반의 표준을 제시 하는데 주서, 한림, 대사성, 이조참의 대(부)제학 등의 현요직 경력자를 배출했거나 외직으로는 수령과 방백, 내직으로는 가선과 통정 품계의 역임⁶²⁾이 그것들이다. <G>를 참고하면 시누의 시대 가운데는 이런 조건

顯官이 있는 자와 그 자손, 문무과 급제자와 그 자손으로 한정되었다. 이중 현관은 東西班 正職 5품 이상, 감찰, 6曹郎官, 部將, 宣傳官, 縣監으로 규정되었다. 김현영,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하였는가』(아카넷, 1998), 91~2면.

61) 들국우천 저 유악은 성보급신 ्ह여 잇고/목가삼봉(墨家三峯) 싸인 원기(元氣) 소순부자(蘇三父子) 나 겨시니/ 비계산 나린 맥(脈)이 가마되가 여계로쇠/ 이러 ्ह 도흔 터의 상순 김씨 울엿고야. 墨家三峯은 ‘문필 대가를 중 세 거봉’이란 의미로 소 삼부자의 문제를 칭송하는 성어였다. <G> 서술자는 이런 원의를 떠나 특정지역의 세 산 봉우리라고 이해, 활용하고 있다.

62) 실두서(新注書) 양소통정(兩司通情) 동서벽(東西壁)을 띄웠던가/ 할님청(翰林廳)을 드리 노와 각신피(各身裨)를 초오신가/ 손님(山林)으로 발천(發闡)्ह여 남디 승소(南臺承召) ्ह였던가/ 디사성(大司成) 이조(吏曹) 참의(參議) 유지(諭旨)가 땃 장인고/ 디제학(大提學) 부제학(副提學)을 땃 히나 단엿던고/ 외임(外任)으로

을 충족시키는 조상이 있었을 게 분명한데 <E>에서는 무시된다. 아마 서술자 당대부터 거슬러 4대 이내에 저런 관직자를 배출한 가문이 없다는 단정에서 나온 발언이 아닐까 한다. 여기에는 앞서 논했듯 올케가 시누의 시댁을 무조건 비하하거나 기롱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당대 중앙 정치권력이 일부 경화사족들의 수중에서 좌우되었음을 환기하면 그런 발언이 결코 편파적 이거나 허황했다 보기는 어렵다. 때문에 올케들은 시누 새댁의 과거를 부정 또는 외면하거나 아니면 가까스로 양반에 진입한 유형을 시누 시댁들과 연계시켜야 한다. 제시된 표는 그런 현상을 압축한 결과다. 이해를 돕고자 그들을 거칠게나마 요약, 풀이해 본다.

- 전의 이씨는 인종이 어필 사액한 하목정이란 훌륭한 건물 덕분에 양반이 되었다.
- 관동 이씨는 물질적 부요로 양반이 되었다.
- 신곡 장씨는 여현 장현광(如軒 張顯光)의 후손이라 계알탕건이 유전되지만 잉어 뜨는 데나 쓸모 있을 정도로 산협에서 침체했는데 양반이라 강변한다.
- 신평 전씨는 성을 파자하면(全=人+王) ‘사람의 왕’으로 풀이되므로 양반이라 한다. 에서는 진사 급제 증서가 있으나 양반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다.
- 성산 김씨는 일두 정여창(一蠹 鄭汝昌)과 참판이 난 풍천 노씨와 고향이 같으므로 양반이라 한다.
- 학골 박씨는 중시조가 대구에서 실시된 식년시 초시에 형제가 나란히 합격했으므로 양반이라 하는가, 아니면 신라 왕족 박씨의 후손이라 양반이라 하는가 정확히 판단을 내릴 수 없다.
- 신안 조씨에는 산림 출신의 선조가 있으나 지금은 준수한 신랑으로 양반이라 한다.⁶³⁾

슈령 방빅(守令方伯) 니덕(內職)으로 가선 통정(嘉善通政)/ 뉿뉿치 니여 뉿소 양반이라 울너 매니/

63) 조선시대에 經明行修로 초야에 은거하던 산림들이 진출하여 숭앙되고 또 이용

○ 반남 박씨는 시택이 서울 가까운 충청도에 있으므로 양반이라 한다.

여기서 양반이 불어난 두 가지 변인이 추출될 수 있다. 하나는 4대 이내 현관 배출이란 관례를 모르는 체하고 아득한 선조부터 한번이라도 문무 초시 이상 합격자를 낸 가문이라면 줄기차게 양반이라며 행세했던 경우요 나머지는 가당찮은 논리 혹은 논거로 양반이라 처신한 경우다. 역사학계가 밝혀낸 두 가지와 합치면 양반의 숫적 증대 이면에는 4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하겠다.

산 정기를 받았으므로, 현달했던 인물들과 동향이므로, 신랑이 흰칠해, 서울과 가까운 고장 등의 이유들은 나머지 것들에 비해 어이없다. 그런 기괴한 이유를 끌어대어 양반으로 불러주기를 희망한 가문이나, 또 그런 정황을 공인한 세태 어느 쪽이든 신분사회가 더 이상 지탱되기 어려움을 반증함에 다름 아니다. ‘문벌과 양반 상민 등의 계급을 타파하고 귀천을 불문하고 인재를 뽑아 쓴다’⁶⁴⁾라는 갑오년의 사회제도 개혁도 향촌에마져 이미 그런 대세가 풍미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시대와 세태의 변화에 조응하여 양반 상승의 길이 확장되었고 그 결과 향촌마저 양반 만원 시기에 진입했는데도 <기수가>의 서술자 시누-올케들은 상대방의 문중 내력을 두고 집요하게 언쟁한다. 양반이 희소한 시기라면 어울릴 법한 화제가 그 반대 상황에서도 여전히 도마에 오른 데는 연유가 있을 터인즉 간략하나마 짚어 보기로 하자.

첫째, 국가 및 사회의 제도와 법이 신분 사회를 지탱해 주었다는 점이다. 주지하듯 계급과 신분은 갑오년에 이르러서야 공식적으로 철폐된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신분 계층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와해되었을망정 저것들은 여전히 유효했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규율의 위력을 사용했

당했던 사정에 대해서는 李佑成, 『韓國의 歷史像』(창작과 비평사, 1983), 254~269쪽 참조.

6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7(1981), 310쪽.

다. ‘외가 비록 나진들스 제 할 과거 못할소나<G>’라는 일절은 외가의 지체가 응거자의 등락에 반영될 수 없음을 완곡하게 표현했으나 참조할 사항임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개인의 공사 생활에 계층의식이 깊숙이 관여했던 시기였음을 표백한다.

둘째, <기수가>의 진술 양식이 시누-올케간의 논쟁이었다는 점이다. 논쟁이 불일치의 견해들을 절충하여 호혜적이면서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는 속성의 담론이다. 위계질서가 준엄한 수직 사회에서 채택될 법한 말하기 방식이다. 고집과 권위가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양반 사회에 적절한 담화 기술이다. 논쟁 참여자가 올케-시누라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전통사회에서 둘은 양숙 관계였다. 대화 당사자의 부류는 다양하겠으나 주목적은 합의 도출이다. 그러나 시누-올케는 거의가 상극관계를 형성함으로 결론 없는 대화 곧 결렬로 끝맺는다. 담론이 논쟁인 이상 참여자가 문벌의식에 지배될 것은 자연스럽다. 상대방의 지체를 격하시키는 것은 논쟁의 중요한 전략이므로 상호 우위를 차지하려는 저의에서 서로 양반임을 자처하게 된다.

셋째, 개인적 잠재 욕구의 현실화가 요인들의 하나였을 것이다. 부연하면 비양반층이었을 적의 모델과 결핍은 양반 신분으로 승격된 후 그 보상책으로 양반 행세에 열중했으리라는 추정이다. <기수가> 서술자들의 발언을 반추하면 시누 시집이든 올케 친정이든 상민 신분이 다수였음을 감지할 수 있다.⁶⁵⁾ 그녀들이 하층신분으로 있을 때 선망했던 양반가 부인상은 무의식으로 침잠했다. 이제 처지가 달라져 그녀들은 신분이 상승되었다. 양반을 화두로 삼는 담론은 바로 그 억압된 욕구의 실현으

65) ‘나락 석만 취탁(取擇)호여 되는 되로 강취(強取)호니<C>’, ‘이달을사 식미들은 이 덕에서 늦건마는/ 타문(他門)의 드러가니 이전 안목(眼目) 바히 업다<E>’, ‘혼손(閑散) 양반 웃지마소/ 경상도 팔혼산(八閑散)의 드는 답이 땃 답인고<E>’, ‘계관(桂冠)잇는 계관 잇는 친정 양반 계관 잇느<G>’ 등의 인용문에서 이런 면을 간취할 수 있다.

로 이해할 수 있다.

양반이 미만된 사회에서 논쟁의 주요 쟁점이 양반인 이유는 이처럼 국가·사회적 차원, 논쟁이란 담론 양식, 개인적 잠재 욕망 등 세 방면에서 구해질 것이다.

4. 협애한 언로에 기댄 언어능력 신장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조선 시대 여성들은 언어의 심한 구속을 받았다. 과묵을 미덕으로 삼음은 남성에게도 마찬가지였으나 여성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전자는 말하고 않음이 자신의 자유의사에 달렸지만 후자에게는 아예 선택의 여지조차 박탈했다. 말수는 이를 것도 없고 의견이나 주장마저도 제약받거나 경멸되었다. 여성들에게 강요되었던 삼중지의는 그런 국면의 표본이었다.

출가녀들에게는 숫제 병어리가 되라고 강권했다.⁶⁶⁾ 미혼일 적에는 그래도 친정 식구들과 혹은 또래들과의 어느 정도 얘기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시댁에 들면 3년 이상 맹종이 최고의 처신술이었다. 사안들마다 어른들에게 아뢰어 지시나 하명을 기다릴 일이며 독자적으로 처리하면 미움받기 일쑤였다.⁶⁷⁾ 여자 음성이 문밖에 나면 집안이 망한다고 할 정도로 언쟁을 금기했다.⁶⁸⁾ 다언(多言)을 칠거지악의 한 항목으로 확정함은

66) 시집살이 초기에는 병어리, 장님, 귀머거리로 각각 3년씩 도합 9년을 수동적으로 살아야 시집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는 통념은 다음 구전 민요에 여실히 표현되어 있다. ‘무남독녀 외팔애기 금지옥엽 길러내어/시집살이 보내면서 어머니의 하는말이/ 시집살이 많들단다 보고서도 못본체요/ 듣고서도 못들은체 말없어야 잘산단다/ 그말들은 외팔애기 가마타고 시집가서/ 병어리로 삼년살고 장님으로 삼년살고/귀머거리로 삼년살고 석삼년을 살고보니/ 미나기 꽃 만발했네/. 이배용 외, 『우리 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I』(청년사, 1999), 182쪽.

67) 스스이 취품(就稟)하여 말슴더로 흐여셔라/ 아러 사람 천단(擅斷)하면 뉘 아니 미워히리(H)

68) 엇땃흐면 과음소리 문 빗게 들닌고야<H>

말많은 여인에 대한 사회적 증오의 함의를 반증한 것이다.⁶⁹⁾

이렇듯 출가녀들에겐 원천적으로 담론이 봉쇄되었을 뿐만 아니라 담론의 통로조차 협애했다. 시집 식구는 대부분이 어려운 관계였다. 이해하고 돌봐주는데 가장 가까운 남편마저 하늘처럼 존중하고 두려워하라⁷⁰⁾ 일렀으니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누구였겠는가? 말벗 내지 대화자라도 용이하게 구할 수 있었다면 고충은 얼마간 해소될 수 있었을 터이다. 하지만 가시나 그물 같은 시집 식구들 속에서 그녀들의 속은 안으로만 옥죄어졌다.

그래도 굳이 찾는다면 동서와 시누였다. 물론 그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거리를 두고 경원해야 했다. ‘눈치 빠른 맞동서요 개살구진 시누이라/ 안이서도 눈치보고 거름마다 맵시 본다’⁷¹⁾에 나타나듯 저들도 질시하고 흠담한다. 그러나 연령차이는 날지언정 동서는 처지가 같고 시누이는 여성이면서 향렬이 같기에, 그리고 머잖아 출가할 것이기에, 말하자면 동병상련의 입장이기에 대화의 상대로서 비교적 무난하다. 여성이라는 동류의식과 시집살이해야 할 여자의 운명, 같은 향렬 등이 어우러져 내심을 털어 낼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한다. 동서와 시누가 시집살이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의사와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이요 또 통로였다.⁷²⁾

가부장제도와 내외법이 엄혹했던 시절에는, 그리고 금방 시집살이가 시작된 새댁에게는 입과 말에 자중해야 했다. 아이들이 장성하고 시어머니로부터 살림 열쇠를 넘겨받는 등 시집살이의 연륜이 쌓여 가면 발언권은 강화된다. 아울러 여권에 대한 의식이 각성되고 신분제가 동요하는 시류와 보조를 같이하면서 여성의 말하기에 대한 사회적 압제도 완화되

69) 다언(多言)호고 투시(妬猜)함은 칠거지악(七去之惡) 아닐런가<H>

70) 가장은 하늘이라 존중(尊重)코도 두려워라<H>

71) <여자자탄가>, 權寧徹, 『閨房歌詞』 (효성여대출판부, 1985), 119쪽.

72) 시누, 올케, 동서 사이의 반감과 동조라는 역학적 관계에 대해서는 이배용 외, 『우리 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I』 앞 책, 186쪽 참조.

었다. 부인들이 자율적으로 화제를 선택하고 토론, 언쟁을 벌이며 스스로
 립없이 자신을 표출하는 언어현실을 <기수가>는 사실적으로 제시한
 다.⁷³⁾ 표현의 자유와 권리가 어느 정도 확보된 시대요 사회였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언로만은 여전히 폐쇄적이었다. 그녀들의 언설은 ‘모여 앉’은
 마당에서나 가능했다. 그 구성원들이란 동서와 시누를 벗어나기 어렵다.
 세대나 향렬이 동급인 여성에게만 말하기의 자유가 승인된 셈이다. 허락
 된 자리인 만큼 참석자들은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표현법
 에 고심할 것이요 남의 그것들을 반박하고 전도시키기 위해 비판력을
 길러야 한다. 부여된 언로는 언어 능력의 경연장이 된다.

특히 올케와 시누이가 벌이는 입다툼은 언어 수행장의 압권이다. 언어
 소통의 상대로서 둘은 친밀하기도 하지만 다른 면으로는 적대관계를 형
 성한다. 둘은 나이 차를 불문하고 또 관계가 손위든 손아래든 자기 주장
 에 강하다. 시어른들이나 시집 남자의 지시나 주문에는 복 종하지만 시
 누들의 그것에는 아니꼬와하는 태도를 짓는다. 거칠게 호응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무시하거나 역행하기 일쑤다. 반면 올케가 어떤 고역이나
 곤경에 처하더라도 시누는 대안의 불 구경하듯 방관자로 임한다. 약을
 올리거나 편잔으로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흔하다. 자존심이 이런 언
 행의 저류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시누는 시대 식구의 일원이란 입장에
 서 그들과 대등하게 위세를 부리려는 반면 올케는 다른 이라면 몰라도
 그녀에게만은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오기로 맞선다. 자존심을 꺾으려는
 시누와 그것을 부지하려는 올케가 언변으로 대결함이 그들 언쟁의 본질
 이다.

텍스트 ~<G>는 그런 자존심을 담보로 올케와 시누가 전개한

73) 놀기만 힘을 쓰고 부덕(婦職)을 전폐(全廢)하네/ 제 혼자 아는 다시 판결사(判決
 事) 외고 논다/ 모혀 안자 흐는 말이 제 자랑뿐이로썬/ 물논 조타 자랑하며 식덕
 양반 췌논(貶論)하네/ 문견업다 홍보면서 상하도(上下道)를 분간하네<H>.

논쟁의 한 국면을 온전히 기록해 두었다. 그것도 개인의 인격이나 언행에 한정된 것만 아니라 시대이나 친정의 가문에까지 확산되었다는 면에서 더욱 주목된다. 언술 주체들이 언쟁을 소망스런 방향으로 이끌고자 고려한 변인을 많겠으나 그 관건은 비판적 사고와 효율적인 표출기교일 것이다. 상대방의 논리를 극복하고 설득력 높은 대안을 모색해서 그것을 감동적으로 표현함이 우선적이면서 근본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올케-시누 사이에 야기된 논쟁의 핵심 쟁점은 하루 잔치의 계획~파연 과정에서 양쪽이 보인 언행과 둘의 친정-시댁이 각각 양반가문이나 여부로 압축된다. 먼저 양쪽이 상대방의 처신을, 그것도 하당댁이 올케들을 논평한 점을 계기로 야기된 분란에 한정해 어떻게 상호 설전을 펼쳤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A>에서 하당댁은 잔치에 참석한 올케들을 동일한 특징으로 들쭉 조합해 4음절 2음보에 기대어 묘출한다.⁷⁴⁾ 그 특징이란 출신지, 체형, 이전 신분 등 다양하다. 아울러 위로, 설의, 권유, 경계, 직설 등의 어조를 구사한다. 이채로운 면을 포착함으로써 연상이나 기억을 보조하려 한다는 창작의도가 양조한 표현기법으로 읽힌다.

는 <A>의 서술을 전면 반박한다.⁷⁵⁾ <A>가 한 행에 배당했던 내용을 3~5.5행으로 늘이면서 옹호나 긍정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한다. 사춘댁·각산댁을 일례로 살펴보자. <A>에서는 음전·암전을 교태로 이해했다. 겉으로는 온유해 보이나 속으로는 아양기나 비꼬임이 잠재한다는 곱지 않는 시선이다. 그러나 에 오면 음전을 자연스러움, 암전을 민첩으로, 그래서 인간의 한 특질로 둘을 호평한다. 그리고는 상

74) 앞 각주 14)와 동일함.

75) 가소 강남(可笑 江南) 이 분니야 호도도롱(下道 嘲弄) 어인 일고/ 막비왕토(莫非 王土) 너른 천지(天地) 어디 가 못슬니요/ 서울이 상도(上道)라도 한양 유학(漢陽 遊學) 더욱 설고/(중략)/ 음전암전 이너들이 그 뉘라쳐 교티(嬌態)호리/ 미스(每事)가 천연(天然)하니 음전호기 자연(自然)이오/천성(天性)이 민첩(敏捷)호니 암전호기 여스(女事)로쇠/ 음전암전 아니오면 스람이라 발명(發明)할가/월녕덜렁 군지씨논 시기(猜忌)호는 말이로쇠/(하략)

대편을 시기했다고 역공한다. 가 분석과 종합으로 논리성과 설득력을 높였음이 역력하다.⁷⁶⁾ 하당택의 작으로 추정되는 <C>와 <D>에서는 에 대한 반론이 있으나 미약하다. 음분한 기질을 예시한 올케가 있었다는 점과 친정 조카들에 비견되는 기출이 있다함이 고작이다.⁷⁷⁾ 전자는 의 논점에서 이탈했고 후자는 기껏 직유법으로 공감력을 높인 정도다. 반론이 이 정도에 머문 연유는 다방면에서 구할 수 있겠으나 논리적, 추론적 사고의 빈곤이 주된 요인이 아니었을까 한다. ‘꽤쌈하다’, ‘통분하다’, ‘가관이다’ 등 격한 감정을 직설한 어휘들의 빈번한 사용이 정의적 측면이 강한 작가였음을 암시해 주기 때문이다.

<E>는 에 비해 논술의 길이는 짧아졌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A>을 비판한 참신성이 돋보인다.⁷⁸⁾ 아마도 를 일독한 뒤 요약 혹은 보완한다는 구상으로 씌어지지 않았을까 한다. 위에서 본 사촌택·각산택의 항목을 살펴보면 이 점이 판명된다. 음전 암전이 ‘천생’ 즉 생득적인 것이지 인위적임을 부인하고 있다. 의 천연, 자연, 민첩과 같은 어휘들의 전환적 혹은 종합적 반복이라 해도 무방할 듯하다. 비판력의 훈련과 발휘를 위한 노력이 역력히 드러난다. 첫 음절 초·중성의 일치를 기반해서 ‘말씀’을 ‘막걸리’로 비틀어 희화화시키는가 하면 발음에 요

76) 그렇다고 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그 주장이 객관적이며 타당하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비판력의 계발과 신장이란 관점에서 볼 때 이렇다고 할 수 있다.

77) 또 드라니 인제딘고 최덕딘스(遞職進士) 젓(筭)소리예/ 녹의홍상 저 여편니 듀렴(珠簾)을 놓히 것고/ 아미(蛾眉)랄 벗덜 드러 먼저 보려 호는 거동/ 그 아니 가관(可觀)인가/ 아달 즈랑 너므 마소 우리는 업다던가/ 외손이 낫다 하면 두덕 천의 다령하고/ 외손부(外孫婦) 본다 하면 빙사장정(娉似姜婷) 절여(節女)로췌 /<C>.

78) 호도(下道)양반 조롱마소/호도는 다 호도며 상도(上道)는 다 상돈가/ 명티 양반 조롱마소/상호삼판(上下山坂) 두루씨기 어디 가면 막힐소냐/ 혼손(閑散) 양반 웃지마소/ 경상도 팔혼산(八閑散)의 드는 답이 땀 답이고/(중략)찌룩찌룩 찌리 던들 게네 비가 부를넌가/ 말씀인가 막걸리가 그런 입 두었다가/ 흉연(凶年)을 당하거든 죽이나 부러 먹소/ 남의 흉 보지 마오 게네 흉 드러나네<E>.

긴한 입술을 뜨거운 죽 식혀 먹는데 사옹하라는 당부는 ‘남의 홍보지 말라’는 전언을 충격적으로 각인시켜 준다. 고도의 언어수행능력을 시사한다.

이미 <A>에서 부분적으로 올케와 그 친정을 거론하며 제기된 양반가 문여부는 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하루 놀이에 참석한 시누들 9명 중 거평집을 제외한 8명의 친정이 비평의 대상이다.⁷⁹⁾ 양반 가문임을 부정한 근거는 <표 3>에서 제시되었다. 각 택호를 수식하는 관형 어구는 대개가 호의적이거나 가치중립적이다. 그러나 비평의 근거가 ‘양반인가’란 부가 의문문 형식으로 일괄 해석된다. 시누들의 친정 곧 화양동 윤씨 가문은 존중하고 시댁들은 격하시키려는 상충적 욕구가 이런 기묘한 표현을 안출했으리라 본다.⁸⁰⁾ 간명하게 시누들의 시댁이 양반가문임을 부인했던 에서 <E>로 옮겨가면 논증의 체제가 확장되고 동시에 엄밀해진다. 오산집의 시집 반남박씨를 예로 든다. 오산댁은 에서 시집이 충청도이므로 사돈댁을 타도 즉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찾으려했던 것 같다. 그것은 충청도가 양반곳임을 전제한다. 하여 서술자는 그런 오산댁의 태도 혹은 의중을 간접적으로 회의하는 정도에서 그친다. 그러나 <E>의 서술자는 그 시댁이 ‘하도 양반’이라 해서 은연중 ‘상도 양반’과 대비시킨다. 이런 표현에는 명백한 내력이나 정통으로 보증되기보다는 단지 서울과 가깝다는, 그래서 서울과 왕래가 수월하다는 거리이기에 양반으로 자처했다는 비판적 인식이 개재했다. 초헌이나 평교자나마 구경

79) 종반거상(宗班居上) 하당댁아 호가스(好家舍)가 양반인가/ 등놀건이 학동댁아 문필(文筆)하면 양반인가/ 자랑 조흔 신평댁은 진소 장(進士 狀)이 양반인가/ 세력 조흔 관동댁은 나락 석이 양반인가/ 타도(他道) 물색 오산댁아 충청도라 양반가/ 새 각시 신안댁아 신랑 조타 양반인가/ 심정 조흔 부순답아 손협사리 양반 보즈/ 알들하다 신평집은 탕건 하나 양반인가/

80) 이런 예상은 인용되는 구절들로 가능해진다. ‘양반 식미 자처(自處)하니 곡절을 가라(르)치소/ 친정으로 자세(藉勢)하고 그런 말 하거니와/ 식덕을나 말도 마소 게네 식덕 나도 아네/ 각각으로 너여 낫소 같은 거시(대적함아) 슈치(羞恥)하니/ 낫낫치 씨티림쇠<E>

했느냐고 반문하는 배후에는 그것들을 몸소 이용해 보아야 양반이라 쳐 줄 수 있다는 양반신분 전거의 설정과 근처에도 못 가 본 주제에 무슨 양반이나 라는 빈축이 내포되었다. 시택의 주거지가 충청도라서 양반이라 자랑하던 오산택에게 무안함과 수치심을 안겨 주었다. 비근하면서도 핵심적인 사물을 제재로 논증과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올케들이 시누 시택들을 이같이 신랄하면서도 예각적으로 양반가문임을 부인하자 시누가 서술자인 <G>에서는 양면작전을 구사한다. 곧 동료들의 시택을 두둔하는 일방 올케 친정을 폄단한다. 전자에서는 와 <E>의 비판을 비판하고 자기 주견을 폄이 순리이나 자기 주장을 내세움에 주력했다. 운문으로 논쟁하는 방식의 한계이면서도 두 과정을 혼용했다고 해석된다. 주목할 점은 와 <E>를 설파함에 호한하면서도 신선한 전고의 활용, 인문학적 학식의 우월함, 의표를 찌르는 발상 등으로 상대를 압도하면서 수용자들을 탄복시킨다는 것이다.⁸¹⁾ 역시 오산택의 경우를 주목해 보자.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충청도가 상도임을 천명한다. 두 가지 논증이 서술자의 그런 단호함을 받쳐준다. 하나는 봄이 도래했음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식물이 살구나무와 버드나무이듯 충청도는 서울과 인접한 곳이기에 서울의 영향을 가장 용이하면서도 기민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나머지는 반남박씨 가문의 세덕이 좋다는 점이다. 조선에서 벼슬은 이상 두 가지 연유로 막힐 수 없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비유의 기발함과 가문의 전통을 앞세워 논지를 보장하는 수법이 표현력과 비판력을 겸전한 고도의 경지임을 자증해 준다.

후자 곧 올케들의 친정 이하 대목에서는 발상이나 기교가 상대적으로

81) 호가소(好家舍)로 이날진디/ 만고대성(萬古大聖) 공부자(孔夫子)도 슈인궁장(數仞宮牆) 노파 잇고/ 당세아성(當世亞聖) 미부자(孟子)도 슈척취제(數尺棧題) 일너지니/(중략) 한림 학스(翰林學士) 간디 잇나 나락 섬은 말도 마소/ 화봉삼축(華封三祝) 요(堯)임군도 부즈(富者)를 축원하고/ 홍범오복(洪範五福) 기자성인(箕子聖人) 이왈 부(富)라 흐여시니/ 천석 만석 관동 니씨 오복삼축(五福三祝) 갓초왓니/(중략)/ 상도(上道)로쇠 상도로쇠 충청도가 상도로쇠/ 행양화목(杏楊花木) 쉬운 봄의 세덕(世德) 도흔 반남 박씨/조선 벼살 막힐소나/<G>

저속하다는 인상을 준다. 15가문이 거론되는데 7가문을 성씨에 빗대어 말장난 수법으로 골려주고 있는 면이 그 단적인 보기이다.⁸²⁾ 해당 가문의 족보에 불명했거나 혹 해박했더라도 고의로 언급을 기피했을 것, 둘 중의 하나로 예상할 수 있다. 어느 편을 취하든 일률적인 방식을 7번이나 반복한 일은 무성의 내지 사유의 좁은 폭으로 해명되기 십상이다. 그나마 동일한 방식 안에서 변화를 준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 외 양반 자격 미달의 근거로 내세운 항목들은 진부한데다 직설적인 비속어를 구사해 반사적인 모멸감을 기대할 수 있을지언정 여운의 맛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누들의 시댁 진술과 비교하면 예의 단점들이 새롭게 해석될 수도 있다. 곧 시누 시댁과 올케 친정들을 대극적인 문제로 진술함으로써 명료하게 대비시키려는 효과를 기대했다는 것이다. 시누 시댁은 전통과 지위와 명예를 도습한 구향(舊鄕)들이요 올케 친정들은 시류에 따라 이런저런 구실과 수단으로 발신한 신향들로 양자에 대한 서술자의 인식 격차를 저런 양식으로 표출시켰다고 보자는 것이다. 서술자의 구도가 실상 이랬다면 우리의 시선은 교정될 수 있다. 올케 친정들의 가계에 합당한 미학 내지 정서를 찾은 결과라면 얼마간 평가가 바뀌어질 것이다. 올케들의 친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의 시발인 점을 들어 타 작품들에 비해 비판력과 표현력의 시험 단계임을 덤으로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이해나 이유가 전자와 후자에 분명한 언어능력상의 균열을 메울

82) 회우창생(海隅蒼生) 강누 권씨 협중치명(峽中致命) 노파 김씨/ 그디들 아는 조상 황도(皇祖)뵈게 또 잇는가/썩썩 말은 범산 최씨 출출 고는 회평 최씨/ 최씨 등의 최말리(崔萬里)요/ 이답도다 단도 하씨 어느 성이 못되야셔/ 하씨 성이 되단 말고/ 절통하다 병손 변씨 조흔 성이 만권마는/ 변성(變姓)헝기 치사(恥事)하다/ 이땅바라ک 상지 강씨 가연강(可燃江)이 아닐런가/ 오흔 디야 양 정씨는 나리(나라) 칭명(稱名) 무삼 일고/ 노르치근 둥동 노씨 노랑 니가 아니쑤다/ 스촌손 당두 한씨는 타성 아닌 발명인가/ 엇지타가 각산 장씨 니쟁(內臟)은 다 썩엇소/ 민디가리 마천 김씨 니여눗소 탕건 보새/ 영민건(網巾)도 외람헝니 박 터질가 염여로쇠/ 장관일쇠 장음 김씨 어려워라 진사 혼 장/ 선정후예(先正後裔) 지동 김씨 되가(大家) 혼산(閑散) 더욱 설다/<G>

수는 없을 것이다.

Ⅲ. 맺음말

합천 화양동 윤씨 문중에서 세전된 9편의 규방가사 중 논쟁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7편을 중심으로 그 핵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두고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1) 이들은 논쟁형이란 규방가사의 새로운 유형을 파생시켰으며 화수가 계통의 조형으로 매김될 수 있다. 하당택은 이 향유집단의 범례적 인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2) 19세기 후반 향촌 양반 여성은 여권의식을 고취하는 이들과 제어하려는 이들로 양분되었다.

3) 당시 사회는 극소수의 천민을 제외한 나머지는 양반들로 구성되었다. 양반이 이렇듯 급증한 이유는 상한들이 재물로 향임(직)을 매수하거나 군역에서 면제되는 경우와 초시 이상 합격자를 배출했으면 등과 시기의 전후를 불문하는 경우, 그리고 가당찮은 배경이나 논거로 양반이라 한 경우, 들에서 구해진다.

4) 비록 동서와 시누들에게만 허용될 정도로 대화 통로가 협애했지만 상대편의 주장과 논리를 반박하고 전복시키고자 고도의 세련된 표현력과 고도의 비판력을 발휘했다.

이상의 의미 적출로도 문제의 텍스트들은 당대 향촌의 문화지형도에 비견된다 하겠다. 국어학, 사학 등 인접 분야가 함께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더욱 충실해지리라 기대된다. 끝

주제어 : <기수가>, 논쟁형, 화수가, 여권 의식, 양반 급증, 언로, 언어 능력

참고문헌

『燕岩集』 권 8.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연구』, 서울대출판부, 199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7, 1981.

權寧徹, 『閨房歌詞研究』, 二友出版社, 1980.

權寧徹·朱貞垣 『花煎歌研究』, 螢雪出版社, 1981.

權寧徹, 『閨房歌詞』, 효성여대출판부, 1985.

김문기, 『서민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83.

김현영,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하였는가』, 아카넷, 1998.

서영숙, 『여성가사연구』, 국학자료원, 1996.

오영교, 『조선후기사회사연구』, 해안, 2005.

이배용 외,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I』, 청년사, 1999.

李佑成, 『韓國의 歷史像』, 창작과 비평사, 1983.

李章熙, 『朝鮮時代 선비 研究』, 博英社, 1989.

鄭奭鍾, 『朝鮮後期社會變動研究』, 一潮閣, 1984.

韓永愚, 『朝鮮時代身分史研究』, 集文堂, 1997.

權寧徹, 「閨房歌詞에 나타난 身邊歎息類의 研究」, 『閨房歌詞』-신변탄식
류-曉大出版部, 1985, 17~94쪽.

김대행, 「가사양식의 문화적 의미」, 『한국시가연구』제3집, 1998. 6, 397~
419쪽.

김종우, 「나옹과 그의 가사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회, 『국문학연구총
서』 3, 정음문화사, 1986, 243~271쪽.

김창원, 「18~19세기 향촌 사족의 가문 결속과 가사의 소통」, 고한연 편,
『19세기 시가 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317~337쪽.

나준순, 「내방가사의 문학과 여성 인식」, 『고전문학연구』 12, 273~298

쪽.

柳海春, 「19世紀 和答型 閨房歌詞의 創作過程과 그 意義」, 문학과 언어 학회, 『문학과 언어』 제21집, 1999, 111~132쪽.

류해춘, 「19세기 <기수가>에 나타난 담론의 양상과 그 기능」, 한민족어 문학회, 『韓民族語文學』 제44집, 2004. 6, 49~76쪽.

박연호, 「<기수가> 담론의 사회·문화적 의미」, 『중원문화론총』 (충북 대 중원문화연구소, 2005, 1~17쪽.

박진주, 「<기수가>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8.

백순철,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0, 12.

신영숙, 「한국가부장제의 사적 고찰」, 여성한국사회 연구회 편, 『여성·가족·사회』 창간호, 열음사, 1991, 34~60쪽.

신은경, 「朝鮮朝 女性 텍스트에 대한 페미니즘적 조명」, 강금숙외, 『한국페미니즘의 시학』, 동화서적, 1966, 25~77쪽.

李愼成, 「<陝川華陽洞坡平尹氏家 閨房歌辭>해제」, 『어문학 교육』 제11집, 1989, 221~267쪽.

李源周, 「歌辭의 讀者」 한국어문학회, 『朝鮮後期の 言語와 文學』, 형설출판사, 1982, 133~166쪽.

정기운, 「규방가사에 나타난 화자의 의식 변화 연구」, 경성대 교육대학원, 1999.

정무룡, 「합천 화양동 윤씨가 世傳 <기수가>의 논쟁 양상 연구」, 韓國詩歌學會, 『한국시가연구』 제21집, 2006. 11, 285~324쪽.

황영심, 「<합천 화양동 파평윤씨가 규방가사>에 대하여」, 『국어과교육』 제10집, 1990, 193~203쪽.

<Abstract>

The Cultural Inclusiveness' Meaning of
Kisuga Handed down from Several
Generations by the Yun's Family at
Hwayang-dong in Hapchengun.

Jung, Moo-Ryong

This paper tries to extract what are the leading senses in the 7 texts of Kyubanggasa created by the Yun's family at Hwayang-dong in Hapchengun. The answers are, summarizing from the point of conclude, as followings.

1) Those texts derive new type which may be called argumentative and can be graded as the ancestral type of the Whasuga's line. The Hadangdaek who is a delegate of the enjoyment group performs many parts.

2) The women in the noble class of country at the late 19 C are divided into 2 groups. one inspires the consciousness for one's rights, the other controls that.

3) At that time the society is occupied with noble class save the small minority of outcast. The reasons that why it increases so rapidly would be four: ① the lower classes buy the country's duties by the means of money, ② are exempted from the military service. ③ Any successful applicant, at once passing the lowest class examination, calls oneself novel class forever in spite of the before and behind the passing day. ④ The lower class professes oneself

novel one in virtue of unfair background or basis.

4) Though the ways of discussion were skimpy because of being only permitted between the wife of one's husband's brother and women's husband's sister, one who participates in the argumentation displays high grade power of expression and critical faculty in order to confute and subvert the rival's persistence, logic.

Key Words : *Kisuga*, Argumentative type, Whasuga, Consciousness for woman's rights, Rapid increase in the nobility, Way of speech, Capability of speech.